도시경관 가꾸기

Urban Design: Learning from Yokohama

이희숙(경북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강사, lisahslee@hanmail.net)

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개발보다는 경관보존 및 관리 창조 등의 경관행정에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, 시민들 사이에서도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.

왜 그러한가? 이는 도시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, 삶의 장소로서의 어메니티(amenity)나 도시미와 같은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. 또한 각 지자체의 경관관련 조례제정 및 계획수립의 움직임 속에는 도시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지자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.

도시경관은 도시와 자연의 물리적 형태와 같은 시각적 측면은 물론, 사람들의 활동, 역사성, 독특한 분위기, 이미지 등 오감 전체로 느낄 수 있는 영역도 포함한다. 즉, 도시경관은 미적 측면의 도시환경 뿐만 아니라 생활이 담긴 도시 전체의 종합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이므로 도시경관은 그 도시의 문화를 나타낸다.

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로는, 개개 도시의 독자성이 없어져 도시의 정체성(identity)이 약하다는 점, 그리고 도시 속에서의 공공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.

이제 경관은 우리의 도시가꾸기에서도 전면적인 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도시 재개발 사업의 논리나 조경차원의 계획만으로는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는 비전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. 도시가꾸기 논리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과제이다.

이러한 상황에서, 본 발표는 우리와 유사한 행정체제와 도시환경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꾸기를 성공적으로 전개해 온 일본의 도시 요코하마를 대상으로, 그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면서, 우리나라의 도시경관 가꾸기 방향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.